

문법기술의 일관성과 간결성

—특히 학교문법의 부정문과 {-게}어미 처리를 중심으로—

김 지 홍*

I.

1-1. 한 언어를 지배하는 ‘규칙들의 집합’으로서 문법을 정의할 때, 우리는 여러 갈래의 문법이 있음을 안다. 그 규칙의 내용을 분류학과 같은 모습으로 정할 것인가, 또는 적형식(wff.)을 만들어 내는 모습으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집합의 내용은 달라진다. 여기에 기술대상의 자료를 입말에 한정할 것인가, 또는 머리 속의 말(I-언어)에 한정할 것인가 등의 변수가 고려되면, 문법의 갈래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문법의 내용이 다양성을 띤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언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연구의 출발과 결과 검증이 일상언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선 서로 공통점을 갖는다. 모습이 다른 문법들이 우리의 일상언어를 놓고 대립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 사이에 서로 우열을 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척도를 내세울 수 있다. 관찰을 적절히 하였느냐, 기술을 적절히 하느냐, 설명을 적절히 해 내느냐, 예측을 적절히 할 수 있느냐 등의 기준이 그것들 사이의 우열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제1차 준거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문법이 두 개 이상이라 할 때, 우리는 다시 그들 사이의 우열을 가르게 하는 제2차 척도를 제안할 수 있다. 문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단일 공리체계에 의존하여 간결성이 확보되느냐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연역체계를 가정할 때, 공리계에서 도출되는 개별명제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전임강사

들은 필연적으로 일관성을 지니게 된다. 개개의 도출명제가 자신의 공리계에 대해 ‘집합-원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모순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일관성은 모순이 없는 도출관계를 의미한다.

간결성이란 두가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서로 경쟁하는 두개 이상의 공리계에서, 그 공리계를 구성하는 대상들(구성소)에 대한 양적 비교를 뜻한다. 다른 하나는 대상을 일원주의 입장에서 파악하느냐, 또는 다원주의 입장에서 파악하느냐에 대한 태도를 가리킨다. 될수있는 대로 대상을 하나의 원리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고, 그쪽으로 수렴해 가는 태도가, 보다 간결성을 유지하는 경우로 평가된다. 극단적인 간결성은 일원주의 태도에서 확보된다. 본고에서의 간결성은 후자쪽을 의미한다.

1-2. 본고는 학교문법의 기술 가운데 일관되지 못하고 간결하지 못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로부터 일관성과 간결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부정문을 지배하는 일관된 원리와 다양한 {-계} 어미 분포를 통합할 수 있는 모종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문법의 구성계층을 원리·형태소·어휘로 대분할 때, 상대적으로 원리와 형태소들은 최대한 일관성과 간결성을 유지해야 될 존재라고 믿어진다. 그것들은 매우 다양한 어휘들을 결합시키는 데 관여하고 있다. 이 두 구성요소가 어우러져 무한한 언어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대상이 무한하다고 하여 그 대상을 만드는 기제 또한 무한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자연수가 무한하지만 자연수를 낳는 기제는 매우 단순한 모양을 지니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 기제를 언어라는 대상에 한정할 때, 우리는 이를 규칙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규칙은 자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성격들을 준수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런 특성 가운데 몇몇이 일관성과 간결성이다.

본고는 원리와 형태의 두 부문에서 사례를 하나씩 들어 그 일관성과 간결성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부정문 기술의 경우를 일관성이 없는 예로 여겨, 거기서 일관된 어떤 원리를 찾아 보려고 한다. 또 {-게} 어미 본포와 그 분류에 대한 착종을 간결성이 결여된 예로 주목하여, 거기서 간결성을 이루게 될 공통된 기반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우리는 문법이 이미 제시된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님을 안다. 보편문법의 실체는 매우 추상적인 모습(\bar{X})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 인지심리학이나 분자생물학적 구조가 자세히 밝혀지기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문법을 구성하는 일이란, 다른 개별문법에서 제시하는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국어에 내재된 체계의 성찰과 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례로, 인구어에서 문구성의 핵으로 간주되는 성·수일치소(AGR)가 우리 국어에선 설정되지 않는다. 두개 이상의 명사가 배열될 때에도, 인구어처럼 ‘개체성-전체성’의 형상({하나} {사과})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체성-개체성’의 형상({사과} {하나})을 갖는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정관사나 부정관사 따위 구별사에 대한 직관이 없는 것도 두 언어 사이의 형상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국어에서 부정문은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 두 형식이 있다. 그 내용 또한 ‘안-부정’과 ‘못-부정’ 두 종류가 있다. 표면구조에서만 보면 이 기술은 정확하다. 그러나 이 표면에 대한 기술 자체가 결코 국어의 밑바닥에 있는 형상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저로 가면, 부정문을 구성하는 형식은 하나의 단일한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부정문의 내용 또한 독립된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공통된 의미자질 위에 부차의 의미자질이 덧붙여지는 배타적(상보적)인 관계임을 보이기로 하겠다.

국어에서 겹문장(복합문)을 이루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다. 안기는 문장(내포문)과 이어진 문장(접속문)이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복문을 내포문과 접속문으로 나눌 때의 난문제 중 하나는, 중속접속을 이끄는 어미와 동사구 내포문을 이끄는 어미가 서로 중복되는 데에 있다(부사형어미

가 대표적임). 학교문법에서 이런 어미들은 연결어미의 갈래에다 '보조적 연결어미'로 등록해 놓고 있다. 목록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문제의 내용이 해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고에서는 {-게} 어미를 대상으로 하여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특히 기저구조의 통일성에 대한 제안(주5 참조)을 바탕으로 하여, {-게} 어미에 대해 동일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공통된 의미자질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살피겠다. 이 논의의 전단계로서, {-게}는 전적으로 어미의 자격을 받아야 되며, 접미사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 됨을 논의한다.

II.

2-1. 국어에서 부정문을 논의할 때, 두가지 형태를 거론하게 된다.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이 그것이다. 앞의 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어미 {-지}와 뒤따르는 부정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가 나타나는 것이다.⁽¹⁾ 뒤의 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형태소 {아니, 못}이 부정하려는 동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두가지 부정문 형식이 서로 독립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지, 동일한 내용의 다른 변이형에 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이들은 각각 이의설과 동의설이라는 용어로 지칭된다. 이의설은 길고 짧은 형태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만큼 부정의 작용원리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의설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동일한 기저구조를 갖는 표현상(표면구조)의 변이형태 정도로 간

(1) 편의상 본고에서는 동사를 상위개념으로 사용한다. 굳이 동사와 형용사를 나눠야 할 경우가 생기면,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라는 용어를 쓰겠다. 동사와 보조동사가 같이 언급될 경우에는 '술어'라는 용어를 상위개념으로 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공범주와 지표를 표시하기로 한다. 공범주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로 e를 도입하며, 지표로는 아래 첨자 i, j 등을 쓴다. 공범주의 하위부류로서, 흔적(t)이나, 대명요소(pro, PRO)나, 또는 변형이나 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단지 외형적으로 공범주냐, 아니면 어휘범주냐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 논의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범주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주하게 된다. 동의설에서 이들의 차이를 변이형태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왜 이들이 변이형을 실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은 계속 남아 있다.

두 형식이 동일하다고 보는 동의설 입장에서는, 두 부정문을 하나의 동일한 기저에서 도출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때 도출과정에서는 의미의 변질이나 차이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소위 변형과정에서 '의미보존성의 원리'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바로 이의설의 성립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이의설에서는 다음에서 보듯이 두 형태의 부정문이 수의적으로 바뀔 수 없음에 주목한다.

- 1-ㄱ) 돌이가 참 안왔다.
- ㄴ) *돌이가 참 되지 않았다.
- 2-ㄱ) 이 못난 사람아!
- ㄴ) *이 나지 못한 사람아!

긴 형태와 짧은 형태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고 서로 동일하다면, 1-ㄴ)이나 2-ㄴ)같은 예문이 비문으로 판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결론이 잘못되었음을 안다. 이런 예외들이 1~2)에만 한정된다고 할 때, 이들만을 예외적으로 처리하여 동의설 입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이들에다 '관용적'이라는 부가조건을 붙여 이들만을 예외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예들과는 정반대로 짧은 형태의 부정문이 비문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 3-ㄱ) *꽃이 안 아름답다.
- ㄴ) 꽃이 아름답지 않다.
- 4-ㄱ) *색깔이 못 하얗다.
- ㄴ) 색깔이 하얗지 못하다.

예외성이 오직 한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을 예외로 취급하더라도 별반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예외적인 존재가 어떤 반대되는 분포까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원리나 규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예문 1~2)는 짧은 형태만을 허용하고 있고, 예문 3~4)는 긴 형태만을 허용한다. 이 사실은 뭔가 이들 사이에 그 문법성을 결정하는 원리가 담겨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부정을 운용하는 동일한 원리가 하나 있음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 원리에서 긴 형태로 실현되는 조건이 있고, 짧은 형태로 실현되는 조건이 있음을 논의하겠다. 무턱대고 의의설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의설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문법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동일한 원리가 상정되어야 하고, 그 원리가 실제로 수행될 때 여러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달리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부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주어져야 할 사항이 있다. 부정이 하나의 언어형식이라면, 부정을 구성하는 외적 형식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외적 형식이 갖는 의미(또는 내포)와 작용원리가 수립되어야 한다. 부정의 외적 형식은 우선 부정의 대상이 될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부정소 {아니, 못}이 작용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때 부정소의 작용방식은 짧은 형태와 긴 형태로 나타난다. 짧은 형태는 동사 앞에 부정소 {아니, 못}이 위치한다. 긴 형태는 동사 뒤에 부정어미 {-지}가 나타나고, 부정소와 {하다}가 부정서술어를 구성하여 부정어미 뒤에 인접하여 실현된다. 외적 형식에 대한 규정은 우리들에게 왜 긴 형태와 짧은 형태의 부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해 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 두 형식이 갖는 내포와 부정소의 작용원리를 상정하기로 한다.

5) 부정소 작용원리(잠정적)

부정소는 바로 뒤따르는 술어의 내용을 바꾼다. 이때 부정소는 오직 한번에 걸쳐 그 술어에 작용하며, 그 작용의 결과는 {아니, 못}의 의미가 유도하는 내용이 된다.

이 부정소 작용원리를 준수하려면 오직 짧은 형태만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긴 형태도 이 원리에 의해 실현되는 것임을 논의하겠다. 그 방식은, 부정소에 의해 작용받는 술어가 5)의 작용원리에 따라

보조동사 {하다}가 되겠는데, 부정서술어에서의 {하다}의 의미는 부정어미 {-지}의 매개에 의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2. 이 논의에 앞서 우리가 구명해야 하는 것은 부정소 {아니, 못}의 의미이다. 왜냐하면 앞의 예문 1~2)에서 보았던 {안되다, 못나다}는 그 대립쌍이 {잘되다, 잘나다}이며, {되다, 나다}에 부정소가 얹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니·못} : {잘}’이라는 ‘정도성 대립’을 나타낸다. {잘되다/잘나다}와 {안되다/못나다}라는 극성어휘 사이의 대립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부정의 논의에서는 제외된다. 이 점은 부정문의 형식 규정에 의해서도 걸러진다. 술어가 주어지고 그 술어에 부정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부정형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부정의 형식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장을 만들게 되면 {*안잘되다, *못잘나다}와 같이 비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정소의 의미는 전통문법의 규정에서 ‘불위, 불능’정도로 매겨져 있었다. 이후 동사의 분류에 따라 단순부정이나 의도부정 등의 값이 매겨지기도 하였다.⁽²⁾ 그러나 동사의 분류는 이들 부정소의 의미를 나누는 일차

(2) 학교문법을 해설한 남기심·고영근(1985 : 359~70)에 의하면, ‘아니-부정문’에는 단순부정과 의도부정이 있다. ‘못-부정문’에는 행동주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외부요인으로 말미암아 동사로 표시된 행위가 나타나지 못함을 지시한다고 쓰여 있다. 이 내용보다 더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신원재(1987)에서 참고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아니-부정’이 어떤 동사와 통합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상태동사와 통합되면 화자의 판단에 따른 결과부정을 나타낸다. 과정동사와 통합되면 상태변화가 끝나지 않은 정도를 가리킨다. 동작동사와 통합되면 의도부정·강한 명령·나무람·진행부정 등을 뜻한다. ‘못-부정’은 원인이 내부에서 찾아질 때에는 능력부정을 나타낸다.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에는 외부원인에 의한 부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못-부정’은 거부·강한 명령·나무람 등의 뜻이 도출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정소의 내포의미를 세분화하 보니까, 두개의 부정소가 같은 내용의 내포를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부정소의 의미가 통합되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며, 똑같은 동사라 하더라도 어떤 논항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짐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공통된 내포의미도 두개의 부정소가 공통된 의미지반을 갖고 있기 때문임을 보이겠다. 다시 말하여, ‘아니’라는 부정소의 의미가 [A]라고 규정되면, ‘못’이라는 부정소의 의미는 여기에다 다른 자질이 첨가된 [A+B]로 그 의미가 규정된다. 여기서 공통된 내용이 바로 동일한 내포의미를 낳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기준이 될 수 없다.

6-ㄱ) 철수가 안 간다.

ㄴ) 버스가 안 간다.

ㄷ) 시간이 안 간다.

6)에서는 똑같이 동사 {가다}가 실현되어 있다. 각각의 주어논항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6-ㄱ)의 경우, 주어가 의도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논항이므로 의도부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제3자가 철수의 ‘가고 안 감’을 언급할 경우라면 단순부정이라고 말해야 된다. 6-ㄴ)은 버스가 의지 없는 개체이므로 단순부정이라고 하겠다. 6-ㄷ)은 시간이라는 존재를 무정물로 볼 것이냐, 의인화된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부정의 값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순부정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의도부정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들 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부정의 내용은 어떤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니다. 부정을 의도부정이나 단순부정 등으로만 규정할 경우, 그 구분은 주어논항의 성격과 표현방식에 따르게 된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 부정의 의미가 구분되는 것처럼 기술된 것은 잘못이다.

위와 같은 관찰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종전에 규정되던 부정의 의미가 단지 주어논항과 표현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정작 부정소의 본래 의미를 찾아주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귀결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단순부정의 술어가 암시하는 정도를 부정소 {아니}의 의미로 간주하고자 한다. [실현되지 않음]을 기저의미로 삼는 것이다. 여기에 유정물의 의도가 덧붙여지면 의도부정이 도출된다. 이 도출의미의 성립은 전적으로 주어논항의 성격에 의해 이뤄진다.

부정소{못}의 의미도 위의 방식대로 결정된다. {못}이 갖는 의미는 ‘불능·금지·타의부정·외적부정·평가부정·강한명령·거부’ 등으로 기술되어 왔다. 이들도 {못}에 고유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기

저의미가 있고, 여기에 주어 논항의 성격과 표현방식에 대한 추가조건이 주어지면 도출의미가 만들어진다.

- 7-ㄱ) 철수가 못 나온다.
- ㄴ) 토끼가 못 나온다.
- ㄷ) 그 책이 못 나온다.

6)의 예문에서와 같이, 7)에서도 똑같은 하나의 동사 {나오다}가 실현되어 있다. 여기에 7-ㄱ)과 같이 유정물 주어논항이 결합되면, 그 의도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로 해석되어 ‘불능’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제 3자가 철수의 상태 —— 가령, 철수의 부모가 철수를 집밖에 나갈 수 없게 하는 상태 —— 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7-ㄱ)은 ‘금지’나 ‘타의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된다. 또 상황을 철수가 입원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경우로 고정시키면 7-ㄱ)은 ‘평가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7-ㄴ)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그 부정의 의미가 달라진다. 창살에 갇혀 있을 경우에는 ‘외적부정’이나 ‘타의부정’을 나타내고, 병이 들거나 기력이 다한 경우라면 ‘불능’을 나타낸다. 토끼가 어떤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의 여부로써 사람들이 내기를 거는 경우, 7-ㄴ)은 ‘평가부정’의 해석을 받는다. 7-ㄷ)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부정의 의미가 바뀔만 마찬가지이다. 조판이 늦어져서 정해진 시간 내에 책의 출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타의부정’이나 ‘외적부정’이 된다. 그러나 책의 내용이 출판금지된 것이라면 ‘금지’의 해석을 받는다. 가령, 주어논항에 {너}가 실현되고, 화자와 주어논항 {너} 사이에는 명령을 수행해야 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자.

- 7-ㄹ) 너 못 나오겠어! (?)

이런 경우 7-ㄹ)은 ‘강한 명령’이나 ‘협박’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상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부정소 {못}의 경우에도 어떤 갈래진 뜻이 부정소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뜻들은 부정소 {못}에 고유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결

정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부정소 {못}이 갖고 있는 기저의미가 있고, 여기에 주어논항이나 표현방식의 추가조건이 덧붙여져서 다양한 도출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위의 도출의미를 관통할 수 있는 {못}의 기저의미로서 [기준점에 못미침], 또는 도달해야 된다고 믿는 어떤 기준 사건이 있는데 [그 기준사건이 실현되지 않음] 정도를 상정한다. 여기에 다 추가조건으로 주어논항의 유정성이나 의도성의 여부 또는 표현방식의 종류가 붙게 되면 다양한 도출의미가 나오는 것이다. 기저의미의 내용만을 비교하면 {못}이 {아니}보다 유효적이다. {아니}의 기저의미에다 특수한 내용이 덧붙여진 셈이다. 이 유효성으로 말미암아 {못}이 의미상으로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분포상으로 실현범위가 더 제약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관계를 간단히 표시하여 {아니}의 기저의미를 [실현되지 않음]으로, {못}의 기저의미를 [기준점이나 기준사건+실현되지 않음]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여기서, 개별의미들은 부가조건에 따라서 도출되는데, 그 부가조건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다(주2 참조).

2-3. 부정소 {못}은 소위 '주관적 감각동사'들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출다, 기쁘다, 아프다, 기쁘다, 괴롭다).

- 8-7) *못 출다, *출지 못하다.
 ㄴ) *못 기쁘다, *기쁘지 못하다.

이들 동사는 화자의 주어논항이 {나}로만 나타난다. 내포문의 구성을 이루는 경우를 제외하면⁹⁾ 언제나 말을 하고 있는 화자 자신인 {나}하고만 배타적으로 통합된다.

(3) 가령 다음과 같은 분포에서 그 주어조건이 해소됨을 관찰할 수 있다.

- (가) 철수가 출다고 한다.
 (나) 철수가 추워 한다.
 (다) 철수가 추울 것 같다.
 (라) 철수가 출게 지낸다.

- 9-7) 내가 춥다, 내가 기쁘다.
 ㄴ) *영희가 춥다, *너가 기쁘다.

부정소 {못}이 이들 무리와 통합될 수 없는 까닭은 부정소의 의미에서 찾아진다. 기준점이나 기준사건이란, 말하는 사람의 의식을 통해 들어오는 외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주관적 감각동사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말하는 이의 의식에 관한 것이고, 그 의식이란 단지 '있음·없음'(곧 실현 유무)만이 존재한다. 의식 자체가 어떤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까지의 과정이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무리의 동사들은 과정성을 띠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단지 그런 감각이 있고 없음만이 문제가 된다. 이런 까닭에 부정소 {아니}와만 통합되며, 진행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음과 같이 불가능한 것이다.

- 10-7) *내가 춥고 있다, *내가 추워 가고 있다, *내가 춥고 있는 중이다.
 ㄴ) *내가 그림고 있다. *내가 그리워 가고 있다, *내가 그림고 있는 중이다.

부정소 {못}은 또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어휘들과도 통합될 수 없다(더럽다, 나쁘다, 모질다, 좁다, 작다).

- 11-7) *못 더럽다, *더럽지 못하다
 ㄴ) *못 나쁘다, *나쁘지 못하다

이 점은 앞에서와는 달리, 언어사용의 특성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 복문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겠다. 이들이 복문구조를 이룬다고 하면, 그 하위 구성요소로서 단문을 삼정하게 마련이다. 이때에 삼정되는 단문으로서 {철수가 춥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삼정된 문장이, 독립적으로 현실발화에서 쓰여진다고거나, 현실발화에서 문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위문에 내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위문에서 모종의 통사적 해소기제가 이 단문에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기제에 대한 해답은 더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현실발화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어휘들은 반대되는 어휘(깨끗하다, 좋다)와 관련하여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부정소 {못}에 상정되는 기준점이 우연하게 한쪽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사용 습관이 단지 부정적인 쪽의 기준을 채택하지 않는다. 이 상황이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그 제약이 해소될 수 있다. 곧,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준점만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12-7) 그 사람이 모질지 못해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어!

ㄴ) *그 사람이 착하지 못해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어!

예문 12)에서는 어떤 개체가 모질어야 함을 그 요구조건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모질다}는 부정적 어휘에 해당한다. 전체문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이런 부정적 어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12-7)만이 허용되는 것이다.

2-4. 앞에서 (§.2-2) 우리는 짧은 형식만이 허용되는 경우가 순수 부정문 형식이 아니었음을 보았다(예문 1~2).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3~4)처럼 긴 형태로만 실현되는 부정문에 초점이 모아진다. 우리는 왜 이들이 긴 형태로만 나타나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들 예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부정될 대상이 파생 또는 복합구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 구조를 {A+B}로 나타내자. {아름-, 하야-}는 어근 성격을 갖고, {-답다, -하다}는 접미사 성격을 갖는다. 이를 두개의 언어요소라고 하고, 앞에서 상정한 5)의 작용원리를 적용시켜 보자. 그러면 부정소가 어느 언어요소와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5)의 원리를 더 강한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5) 부정소의 인접요소 작용원리

부정소의 작용은 바로 뒤에 인접한 요소에 오직 한번에 걸쳐 이뤄진다.

5')에 따르면 {A+B} 복합요소에서 부정소는 {A}에만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관계맺음은, 접미사가 어근이나 어기에만 붙는다는 일반성을 어기고 있다. 5')을 인정한다면, 부정소와 {A}가 먼저 융합된다. 접미사 {B}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소+A}가 하나의 어근이나 어기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어기 {A}와 접미사 {B}의 결합이, 부정소와 어기 {A}가 결합되는 것보다 우선 이루어지며, 그 친연성이 더 높음을 알고 있다. 어휘형성의 차원에서 {A}와 {B}의 결합이, 문장구성 차원의 부정소 결합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5')의 작용원리는 대단히 강력한 것이어서 이 직관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용하는 방식이 긴 형태의 부정문이 된다.

{아름답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에서 5')의 작용원리가 준수되면, 부정소 {아니}는 {하다}만을 부정하게 된다. 여기서 {하다}의 의미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어미 {-지}의 매개에 의해 {A+B}가 하나의 단일의미로 되고 나서, 부정서술어의 {하다}에 그 의미가 옮겨가는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서술어의 {하다}는 다른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정서술어의 부정소는 바로 이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야+하-}의 경우도 위의 과정과 동일하다.⁴⁾ 이런 설명은 다음에서 보듯 접두사가 실현될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일반성을 획득하고 있다.

(4) {사람답다, 흰하다} 등의 예에서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어근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철수가 지금 안 공부한다.
- (나) 철수가 지금 공부 안 한다.
- (다) 철수가 지금 공부하지 않는다.

예문 (가)는 부정소가 인접요소에 1회에 한하여 배타적으로 작용한다는 원리에 의해 비문처리를 받게 된다. {공부하다}가 복합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원리를 수용하면, 예문 (나)에서 부정소 바로 앞에 실현되어 있는 언어형식 {공부}는 기저구조에서 복합형식 {공부하지}와 유사하거나 대등한 내용으로 설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공부}를 명사로 간주한다면, 부정서술어 {아니다}가 무엇을 부정하게 되는지를 동사적으로 찾아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정서술어가 부정하게 되는 대상은 동사성을 보장받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공부}라는 언어형식을 명사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공부}를 어근이라고 보는 방식이 있다. 소위 어근의

- 13-ㄱ) *안 짓밟다 : 짓밟지 않다.
 ㄴ) *안 재빠르다 : 재빠르지 않다

그런데 긴 형태의 부정문으로만 나타나는 어휘 가운데 {모르다, 없다}와 같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것이 있다. 긴 형태로만 실현되며, 이들은 긴 형태에서도 특히 {아니하다}와 통합될 뿐이다.

- 14-ㄱ) *안 모르다, *안 없다 (*못 모르다, *못 없다)
 ㄴ) 모르지 않다, 없지 않다 (*모르지 못하다, *없지 못하다)

이들이 부정소 {못}과 통합될 수 없음은 ‘기준점 또는 기준사건’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 부정적 어휘들에서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기준점은 전체를 구성하는 집합이 있을 때, 그 원소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되는 관계이다. 그러나 이들 어휘가 나타내는 것은 단지 어떤 특수한 상태 전체가 된다.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그것을 기준점 또는 기준사건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전체의 상태 그 자체가 부정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모를 수 없다, 없을 수 없다}와 같이 그 상태에 대한 부정형식이 달라지거나, 또는 {아니}의 부정형식을 취하게 된다(14-ㄴ). ‘못’의 기저의미가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14-ㄱ)의 실현은 저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부정소 {아니}와 통합될 경우 긴 형태만을 허용하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이들 어휘의 특수한 의미내용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들 어휘는 복합의미를 지닌다. {모르다}는 [비지득(非知得)+그 상태의 존재], {없다}는 [비존재+그 상태의 존재]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 특성은 간단하게 [실현되지 않음+그 상태의 존재]와 같이 일반화시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부정소 {아니}가 이들과 통합될 때에 [실현

‘주제화 기제’를 거쳐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어근분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예문(나, 다) 사이에는 내포의미를 비롯한 모종의 차이가 찾아져야 한다. 또한 부정소 작용원리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예문(나, 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두 문장이 동일한 기저구조를 갖고 있다고 잠정 전제하여 논의를 끌어나가기로 한다.

되지 않음]이라는 의미가 서로 겹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부정소 {아니}의 의미인 [실현되지 않음]이 바로 뒤에 통합되는 술어의 의미에 배합되려면, 그 술어는 실현되어야 할 내용을 지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부정적 어휘에서는 이런 의미배합 조건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실현되지 않음] 다음에는 반드시 [특정상태]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실현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이성이 이들 어휘를 긴 형태로 실현되도록 만든다고 본다. 또한 유표적으로 이들이 복합의미를 갖는다면, 부정소의 인접요소 작용원리 5')에 의해서도 복합형식에서 보였던 것처럼 반드시 긴 부정문 형식을 가져야 함을 유도할 수 있다.

2-5. 이상에서 우리는 부정문의 구성과 작용원리가 일관되게 한가지로 설정될 수 있음을 보았다. 부정문의 작용원리는 앞장에서 수정된 5')에 따라 바로 뒤따르는 인접 언어요소에 작용한다. 일차적으로 이것은 짧은 형식이 적용되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다시 복합요소로 이루어지는 언어형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를 위해 형식에 변화가 생긴다. 복합요소가 먼저 의미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소를 선행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정어미 {-지}와 부정서술어의 {하다}가 도입된다. 복합요소의 의미는 {-지}어미의 매개에 의해서 하나의 의미로 묶이고 부정서술어의 {하다}속으로 들어간다. 이때 부정서술어를 구성하는 {하다}는 [언급성]정도의 의미만을 지닌다(줄고 1989: 675f.). [언급성]이라는 의미자질이, 부정어미에 의해 매개되는 본동사의 의미를 수용하게 만들며, 이 의미가 다시 5') 원리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긴 형태의 부정문에서 관습적 의미함축을 낳는 원인이 된다. 긴 형태가 {A+B}의 복합형식에 작용하는 부정형식으로 상정되지만, 관습적 의미함축을 낳게 하는 {하다}의 [언급성] 의미자질이 긴 형태가 일반성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대립이 관찰된다.

15-ㄱ) 그는 안 죽었다.

ㄴ) 그는 죽지 않았다.

16) 그는 겨우 살았다.

16)의 함의문을 갖는 부정문은, 이기용(1979:88)에서 이미 지적된 대로 긴 형태로 실현된 15-ㄴ)뿐이다. 15)는 모두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함의문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 함의문이 도출되는 원인은 부정서술어 {하다}의 의미차절에서 비롯된다. [언급성]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부정어미의 매개에 의해 본동사의 의미를 수용하고, 이 의미가 5')에 의해 부정된 다음, 다시 이차적으로 그 부정된 상태까지를 지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긴 부정문이든 짧은 부정문이든 형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동일한 부정원리를 일관되게 확립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짧은 형식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부정소의 기저의미와 관련하여 적절히 설명할 수 있었다. 긴 형식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로써 설명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부정소들의 기저의미가 서로 공통된 바탕 위에 어떤 유효성을 덧붙이고 있음도 보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부정이 다른 형식과 다른 내용을 갖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기술(비일관성)을 지양하고, 보다 일관되고 설명력 있는 원리를 확보하여 그 형식과 내용을 도출하려는 시도였다. 그 원리가 5')에 수정된 진술로 제시되었고, 우리는 이 원리들로부터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운용되는 동일한 근거를 끌어낼 수 있었다. 긴 부정문은 복합언어형식과 통합되는 데에서 비롯되고, 부정서술어의 {하다}가 갖는 성격([+언급성])으로 인하여 관습적 함의문까지 갖게 되며, 이런 특성이 긴 부정문을 일반화시키는 계기로 이해된다.

Ⅲ.

3-1. 문장의 종결에 참여하지 않는 비-종결류 어미들을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나눌 적에, 두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종속 접속어미와 동사를 부사처럼 만드는 부사형어미는 그 구분이 애매하여 상황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꼭같은 음성형식을 지닌 형태소이더라도, 연결어미나 부사형어미로 두 갈래의 분류를 받게 되는 것이다.

17) 신바람이 나게 흥겨운 고향을 벌었다.

18) 흙구덩이를 깊게 팠다.

17)의 예문에서 우리는 두개의 문장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신바람이 나다}와 {e 고향을 벌이다}가 그것이다. 이와는 달리 18)에선 이런 작업이 쉽지 않다. 비록 두개의 동사가 실현되어 있지만, 앞의 동사가 갖는 주어를 표면에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주1 참조). {깊다}의 주어가 {흙구덩이}인지, 또는 구덩이를 판 {상태나 결과}인지를 곧 결정할 수 없다. 일단, 주어를 상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e 흙구덩이를 깊게 파다}라는 전체 문장을 하나의 덩어리인 단문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 처리가 예문 18)에서 {-게}를 부사형어미로 처리하게 만들었던 동기이다.

19) 바람이 들어오게 했다.

예문 19)에서도 두개의 동사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독립된 두개의 문장을 만들어내기란 앞의 예문 18)에서처럼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학교문법에서는 {-게}를, 보조동사 {하다}앞에 실현되어 본동사를 보조동사에 연결시켜 준다는 뜻으로 ‘보조적 연결어미’로 부르고 있다(남기심·고영근 1985: 154f.). 그러나 항상 {-게}어미가 반드시 특정한 보조동사만을 후행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문 17~18)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이런 점에서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배경에는, 우선 본동사의 지위가 부사형이라는 부차적 지위를 받는 점을 시정하고, 또 어떤 일관된 처리를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다. 그 일관된 처리의 방향이 예외적인 요소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된다면 그것은 더할나위 없이 소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게}를 보조적 연결어미의 수준에만 묶어둔다면, 많은 예외들을 만나게 된다((20~26) 예문 참조). 또 보조적 연결어미들이란, 보조동사가 후행하는 사실을 밑에 깔아두고, 두개의 동사가 하나의 서술어로 구실함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는 문장의 연결이나 접속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특정성분끼리의 어휘적 연결만을 의미하는 셈이다. 이는 형태론에서 단어형성(동사합성)의 영역에 해당된다. 그런데 우리는 {－게} 어미에 의한 두 동사의 연결이, 두 동사의 결합 차원을 훨씬 넘어 동사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에도 영향을 크게 끼침을 알고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게} 어미에 의해 유도되는 문장들을 동사구 내포문에서 처리하거나, 종속접속문으로 처리해 왔던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학교문법의 처리가 오히려 {－게} 어미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고, 그 기술 내용에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알겠다. 본고는 우선 {－게} 어미가 실현되는 모든 분포에서, 이 어미가 언제나 문장으로서의 하나의 명제를 갖고 있음을 밝히겠다. 이는 {－게} 어미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실현됨을 밝히는 절차가 된다.

국어에서 {－게} 어미가 실현되는 분포를 보기로 한다. {－게} 어미의 실현은 크게 세가지 분포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접속문(특히 종속접속문)을 이끄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포문(특히 동사구 내포문)을 이끄는 경우이며, 마지막 하나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파생접사, 남기심1985: 77)로 간주되는 경우이다.⁽⁵⁾

(5) {－게} 어미를 접속문의 종속접속어미로 볼 것이냐, 또는 내포문의 동사구 보문어미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다. 남기심·고영근(1985: 269)의 주(12)에서도 종속문을 이끄는 어미와 내포문을 이끄는 어미에 대한 구

- 20) 잠이 잘 오게 눈가리개를 켜웠다.
- 21) 바람이 들어오게 문을 열었다.
- 22) 철수가 영희를 남게 했다.
- 23) 영희가 남게 되었다.
- 24)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 25) 이상하게 날씨가 무덥다.
- 26)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예문 20)은, 우선 종속접속문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접속어미 {－게}라고 하겠다. 예문 21)은 종속접속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장차 어떻게 될 모양을 말하는 장언부사로 보는 경우도 있다(최현배 1971: 284). 예문 22)는 사동을 나타내는 내포문어미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뒤따르는 후행동사에 {시키다, 만들다} 등이 오기도 한다(예문 22'－ㄱ 및 ㄴ 참조).

22'－ㄱ) 철수가 영희를 남게 시켰다.

ㄴ) 철수가 영희를 남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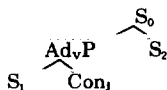
예문 23)은 앞의 예문과는 반대로 피동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사동이 내

분이 명백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같은 책 p. 380, p. 395 참조). 이런 지적에 대한 예증이 될 법하게,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는 같은 어미를 여러 분포로 다루고 있다. 보조적 연결어미(p. 33, p. 87), 종속접속문을 이끄는 어미(p. 134) 등이 그 실례이다. 문법 교과서를 해설한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도 이런 혼효는 마찬가지이다. 보조적 연결어미(p. 155f.), 종속접속문의 연결어미(p. 393), 부사절로 안기는 내포문 어미(p. 380) 등 여러 갈래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남기심(1985)에서는 이런 혼효를 정리하여 하나에 귀속시키고 있다. 종속접속절이 모두 내포문의 부사절로 취급됨을 논의하고, 내포문어미로 보아야 될 통사적 증거들을 서너가지 들고 있다. 이어 유현경(1986)에서 종속접속문이 내포문어미임을 더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게} 어미의 통사적 지위를 이익섭·임흥빈(1983: 264~68)의 제안에 따라 설정한다. 그 제안에서는 접속문과 동사구 내포문이 동일한 기저를 가져야 함을 보이고 있다. 곧, 기저에서 부사절로서의 자격을 받아 장착이 된 다음,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적 연관을 고려하면서 내포문으로도 나타나고 접속문으로도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남기심(1985)에서의 논의와 유현경(1986)에서의 논의도 이 제안 속에 모두 수용된다. {－게} 어미의 통사적 지위를 이런 선행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남은 문제는 과연 다양한 갈래의 {－게} 어미에 대해 어떤 공통의 의미자질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된다.

포문 구성이라면, 피동도 동사구 보문을 갖는 내포문이라고 하겠다. 예문 24)는 본동사를 수식해 주는 부사형어미이나, 앞 예들과는 달리 이 동사에도 어떤 문장 구성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보면, 파생된 부사라고도 볼 수 있겠다. 예문 25)는 문장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이고, 그 자격은 24)에서와 동일한 처리를 받는다. 예문 26)은 보조사 {아} 또는 {서야}가 후접하여 통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예문 25)의 경우처럼 문장부사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위 예들 가운데에서 뒤따르는 보조동사가 고정되어 있고, 그 보조동사에 본동사를 연결시켜 주는 사례는 22~2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보조적 연결어미로 {-게}를 규정할 때에, 우리는 예외가 오히려 전형성보다 많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의 여섯가지 분포를 평면적으로만 살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내포문과 부사형어미 {-게}이다. 그런데 부사형어미라는 술어는 두개의 문장이 주어질 때, 그 두 문장이 내포문을 구성하는지, 접속문을 구성하는지, 두개의 동사가 단어형성에 의해 결합됨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어떤 분명한 언급을 해 주지 못한다. 우리는 {-게}의 분포를 구별하기 위해서 접속문을 이끄는 종속접속어미, 내포문을 이끄는 동사구내포 보문어미, 복합어 형성을 위한 부사파생접사 등의 용어를 쓰기로 한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게} 어미에 의해서 두개의 문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이겠다. 소위 접미사로서의 지위를 없애려는 것이다. 이때 {-게} 어미의 통사적 자격은 부사절 내포문으로 간주한다.⁽⁶⁾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게} 어미에 공통되게 동일한 의미가 주어질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6) 본고에서는 이익섭·임흥빈(1983)에서의 제안에 따르기로 한다. 이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같은 책 : 264).



3-2. 문제를 우선 종속절 접속어미로서의 자격과, 동사구 내포보문 어미로서의 자격에 대한 것으로 좁히기로 하자. 두 개념이 {-계} 어미의 분류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국어에서 복합문을 분류할 적에, 접속문에 의한 복합문과 내포문에 의한 복합문을 거론한다. 접속문이란 문장과 문장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고, 내포문이란 문장이 문장을 싸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권재일 1988 : 75).

27-1)



27-2)



접속문은 27-1)의 구조를 갖는다. 똑같은 자격으로 문장들이 병치되는 관계이다. 그러나 내포문은 27-2)의 구조를 갖는다. 동사구 교점 아래, 내포되는 문장 S_1 이 자리하게 되며, 그 내포문은 상위문의 동사와 자매관계를 이룬다. 맨 위의 교점인 S_0 쪽에서 보면, 접속문은 하위문장을 직접관할하고 있지만, 내포문은 동사구 교점을 통해 간접관할하고 있다.

분포상 {-계} 어미가 27-1) 구조의 S_1 뿐만 아니라, 27-2)구조의 S_1 에도 나타나고 있는 점을 중시하면,⁽⁷⁾ 과연 직접관할과 간접관할이라는 장치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겠다. 다시 말하여, 이 구조도는 단지 언급의 편의를 위해 그려놓은 기술상의 한 방편일 뿐이지, 결코 {-계} 어미의 통사행위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제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 어미가 27-1)이나 27-2)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만 나타난다면, 이 구조도는 {-계} 어미의 실현에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만, 27)의 구조도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27)의 구조에 어떤 의미론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

(7) 예문 20~21)이 종속접속의 구조를 갖고, 예문 22~23)이 동사구 내포문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안이 있겠다. {—게} 어미에 이끌리는 선행문이 반드시 있어야만 문법성이 확보되느냐, 아니면 없더라도 문법성의 확보에 지장이 없느냐의 여부를 이 구조에다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선행문의 존재 S_1 은 27-ㄱ)에서는 수의적이 되나, 27-ㄴ)에서는 필수적인 존재로 특정지워진다. 가령, 앞의 예문 21-22)를 보자. 21)의 선행문 {바람이 들어오다}는 생략되어도 후행절 {문을 열다}의 문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22)의 선행절 {영희가 남다}가 생략될 경우, 후행절 {철수가 e 하다}의 문법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게} 어미를 다루면서, 이 어미가 종속절을 이끄는지 또는 보문절을 이끄는지에 대한 확인은, 바로 후행절의 독립성 여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27)의 그림에서 27-ㄴ)의 내포문을 필수적인 성분으로 간주하려면 다음 규칙을 도입하여야 한다.

28) 동사구 VP에 의해 지배되는 문장 S는 생략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얼마나 특수하고 1회적인지(ad-hoc), 그리고 이 진술에 위배되는 반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예문에서 곧 알아볼 수 있다.

29-ㄱ) 철수가 [영희가 제일 예쁘다고] 자랑거렸다.

ㄴ) 철수가 자랑거렸다.

29-ㄴ)은 29-ㄱ)의 내포문을 지배하고 있는 상위문이다. 여기서는 동사구가 지배하고 있는 내포보문이 생략되더라도, 29-ㄴ)에서 보는 것처럼 그 문법성에 하등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28)의 진술이 모든 동사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보문의 출현이 특정한 동사의 하위범주화 자질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종속절과 내포절의 가름을 해 오던 기준이, 어떤 통사적인 근거(구조)에 의해서 마련될 수 없고, 단지 관계되는 동사의 하위범주화 자질에 의해 나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는 27)의 구조적 차이가 단지 동사의 하위

범주화 자질을 그려주는 것에 지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복합문의 어떤 형식적 분류와 그 분류에 따른 어미 선택 및 유관 동사의 제약 등을 27)의 구조도가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27)의 구조도는 특정 동사가 갖고 있는 하위범주화 자질의 갈래만을 표시해 주는 매우 소극적 분류도인 것이다. 이런 자격의 분류조차 동사의 하위범주화가 특정의 고정된 형식만을 갖고 있지 않을 개연성까지를 고려할 때⁸⁾ 그 구조도의

(8) {되다}가 실현되는 예문만을 보아도, 그 하위범주화 자질이 하나의 고정된 틀로 붙잡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되다}는 흔히 변화나 변성의 의미로 이해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최소한 변화되기 이전의 상태와 변화된 이후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두개 이상의 논항을 주어야 한다. 이를 [— Θ_1 , Θ_2]로 표시하자. 이 의미역이 실현될 때 나타나는 통사범주는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다.

(가-1) 물이 얼음이 되다.

(가-2) 물이 얼음으로 되다.

(나-1) 그가 내 조카가 된다.

(나-2) *그가 내 조카로 된다.

예문 (가)에서는, 변성격조사(가-2)가 쓰이든, 보격조사(가-1)가 쓰이든, 그 문법성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나)에서는 변성격조사가 실현될 수 없다. 이는 보어로서 상정된 {조카}가 어떤 변화를 입어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다} 동사와 관련된 모든 논항이 언제나 변성 내지 변화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은 더욱 특이한 구성을 드러낸다.

(다) [[우리가 떠날] 시간이] 되다.

여기서는 외형상으로 단지 하나의 논항만 실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만을 갖고서 하위범주화 자질로 표시되는 의미역이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거들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예문 (라)에서 보듯이 상황공범주(임흥빈 1985)가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e 됐어! ('괜찮다'라는 의미로)

예문 (다)에서 그 기저구조에다 상황공범주를 설치하면 (다')처럼 된다. 편의상 관형절을 생략하여 표시한다.

(다') [[e] [시간이] 되다]

이와 같은 기저구조는 예문 (나-1)과 공통되는 형식이다. (다)의 기저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여, 두개의 의미역이 투사될 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남는 문제는 예문 (라)에 대한 것이다. (라)의 기저에다 공범주를 두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는 상황공범주로서 국어에서 어떤 유연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또 하나의 공범주를 설치하게 되는 타당성이 찾아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또 하나의 공범주를 설치하게 되는 동기가 정당화될 수 없는 한, 우리는 {되다} 동사의 하위범주화 자질이나 그 의미역이 모두 똑같다라고 선언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이 경우를 고려했기 때문에 개연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의미는 더욱 경감되는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게} 어미가 실현되는 문장들로부터 구조적인 차이를 찾아내어 이를 분류상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조적인 차이가 {—게} 어미를 나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후행하는 동사의 하위범주화 자질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나마도 하위범주화 자질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입론도 가능하지 않다. 종속문의 구조나 내포문의 구조는 결국 {—게} 어미를 분류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귀결지어야 하겠다.

3-3. 우리는 여기서 주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보았던 예들을 검토하면서, 그 주어의 상정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겠다. 만일 주어 상정의 어떤 근거가 마련된다면, {—게} 어미가 실현된 문장은 단문이 아니라, 기저에 두개 이상의 문장이 존재하는 복합문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이다.

30-ㄱ) e 흙구덩이를 깊게 왔다.

ㄴ) e 흙구덩이를 파다.

ㄷ) 흙구덩이가 깊다.

위의 예문은 앞에서 들었던 18)을 옮겨놓은 것이다. 동사 {파다}의 하위범주화 자질(의미역만을 표시함)을 [—— 주체, 대상]이라고 보자. 30)에서 파는 주체는 공범주로 되어 있고, 파여지는 대상은 {흙구덩이}이다. 30-ㄴ)이 이를 나타낸다. 그런데 중간에 실현된 동사 {깊다}의 하위범주화 자질은 [—— 대상]이 된다. 그 의미역이 통사배열에서는 주어자리에 실현된다. 그런데 {깊다}에 관계되는 의미역은 30)에서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그것은 상위문 동사에 의해 대상역을 받고 있는 {흙구덩이}일 수밖에 없다(30-ㄷ). 이 귀결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사동문의 구조를 보기로 하자.

31-ㄱ) 철수가 e [영희가 뛰게] 했다.

ㄴ) 철수가 영화를 [e 뛰게] 했다.

이 예문에서도 두개의 동사가 실현되어 있다. {뛰다}에 관계되는 주어는 항에 주목하자. 표면구조상, 그것은 31-ㄱ)에서 주격조사를 갖고 나타나는데, 31-ㄴ)에서는 목적격조사로 실현되어 있다. 31)이 둘 모두 허용되는 문법적 문장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32-ㄱ) *순희가 e [목소리가 크게] 했다.

ㄴ) 순희가 목소리를 [e 크게] 했다.

31)의 예문과는 달리, 32)에서는 {크다}의 주어논항이 오직 목적격조사로 실현된 경우만 문법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술하여, 상위문이 사역동사로 실현될 때, 내포문이 [-상태성]을 띤 경우에는 31)처럼 두가지 형태로 실현되나, [+상태성]을 띤 경우에는 32)처럼 상위문의 목적격조사로만 실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광호 1988). 우리는 이 구문을 유의하기로 한다. 아직 내포문의 주어논항이 왜 상위문의 목적어로 실현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문장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단문으로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30-ㄱ)과의 관련이 높다. 이 점을 달리 나타내면, 30-ㄱ)은 30-ㄱ')처럼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30-ㄱ') e 흠구덩이를 깊게 했다.

이 경우는 상위문의 동사가 {파다}에서 {하다}로 바뀌었는데, 완벽히 32-ㄴ)의 형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30)의 예문도 그 기저에는 다음의 형상을 지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설정할 수 있다.

30') e₁ 흠구덩이를 [e₂ 깊게] 파다.

물론 맨 앞에 나타나 있는 공범주 e₁는 {파다}의 주체가 된다. 내포문에 있는 주어는 상위문에서 목적격조사를 갖는 논항으로 비정된다.

그렇다면, 일단 순수부사적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구문인 25~26)을

제외할 때, 우리는 {-게} 어미에 의해 이끌리는 구문이 모두 두개의 문장으로 된 복합문임을 결론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두개의 문장이 복합되는 방식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어와 목적어, 또는 주어와 주어가 동지표를 받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지표를 동일하게 받는 명사구가 없는 경우이다. 이를 각각 동지표문과 상이지표문이라고 부르자. 동지표를 받는 경우로는, 예문 31~32)에서처럼 상위문의 목적어와 내포문의 주어가 있겠으며, 아래 예문 33)처럼 똑같이 주어들이 동지표를 받는 경우가 있겠다.

33) 꽃₁이 [e₁ 예쁘게] 피었다.

상이지표를 받는 경우는, 예문 20)처럼 종속접속문으로 처리된 경우와 예문 21)과 같이 장언부사로서의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게} 어미가 동지표 구문을 이루거나 상이지표 구문을 이룰 때, 지표의 동일 내지 상이성은 어디에서 말미암는 것일까? 어미 {-게}에 다른 두개의 형태가 있어서, 하나는 동지표를 이루고, 다른 하나는 상이지표를 이루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를 동사의 하위범주화 자질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게} 어미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사동구문과 피동구문으로 분류된 예문을 보기로 하자. 이들은 상보개념인 까닭에, 통사적인 행태도 개념적 상보성을 뒷받침하는 분포를 보인다는지, 또는 모종의 동일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기대된다.

23) 영희가 남게 되었다.

{되다}라는 동사가, 경우에 따라서 한자리 논항만 요구하는지, 또는 언제나 두자리의 논항을 요구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주8 참조). 본고에서는 후자쪽의 입장을 택한다. 대신 제1 논항이 상황으로 될 경우에 다소 특이한 실현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제1 논항은 상황공범주(임홍빈 1985)로 실현되고, 제2 논항은 그 상황공범주에 대한 보문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구도에 따라 23)의 기저구조를 설정하면 아래와 같다.

23') [e_i [영희가 남계], 되다]

23')의 기저구조는 동지표되는 논항이 외형적(표면구조상)으로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동이나 삭제변형이 있을 수 없다. 이 구조는 반드시 동일한 지표를 갖는 논항이 공유되어 있어야 하는 사동구문과 대조를 이룬다. 사동구조는, 의미상 반드시 사동을 당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내용의 당함이 표시되어야 하는 일반성 때문에, 동지표 논항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동구조는 단지 상황공범주가 있고 그 공범주를 설명하는 보문의 실현으로 족한 것이다. 이러한 논항들의 관계에서, 짝짓고 지표를 주는 일은 상위동사의 하위범주화 자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복합문을 내포문과 접속문으로 나누는 구조적 차이가, 반드시 동지표문과 상이지표문에 따라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게} 어미의 실현이 또한 지표의 동일성이나 상이성에 따라 나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27)의 구조도에서 보인 차이가 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상위문 동사의 하위범주화 자질말고는 달리 그 동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주어가 표면적으로 상정되지 않는 예문을 검토하여 왔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표면적으로 주어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저구조에서는 주어논항이 설정되어야 함을 보았다. 이때 기저에 설정되는 언어형식들 사이에는 어떤 지표가 주어질 수 있었는데, 동지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상이지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동지표를 받는 경우는 내포문과 상위문의 주어가 그 후보로 될 수도 있었으며, 내포문의 주어와 상위문의 목적어가 그 후보가 될 수도 있었다.

3-4. 여기서 우리는 예외적인 것으로 유보하여 두었던 25~26)의 예문을 검토하기로 한다. 소위 파생접미사처럼 취급되어야 할 {-게}가 과

연 부사파생접사인지를, 아니면 온전한 어미로서 하나의 문장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다.

25) 이상하게 날씨가 무덥다.

예문 25)에서 우리는 동사 두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이상하다}와 {무덥다}이다. 상태동사들이므로 이들이 갖는 논항은 그 상태에 귀속될 대상이 하나만 있으면 의미역 조건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 실현된 {이상하다}는 무엇을 그 논항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이 두가지로 주어질 수 있다. 하나는 상황공범주를 설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 실현된 문장을 논항으로 삼는 경우이다. 앞의 경우는 그 상황공범주가 어디에 결속되는지를 찾아주어야 하는데, 이때 그 상황은 다시 {상황이 어떠하다}는 등치성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하므로, 결국 뒤에 있는 문장에 결속된다. 결과론적으로 보아서는, 상황공범주를 설정한다고 하여도 뒤따르는 문장의 내용에 결속되어 동일한 처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5') [_{e_i} 이상하게] [날씨가 무덥다]_i

25'') [_{e_i} 이상하게] [날씨가 무덥다]_i

25')은 뒤에 따르는 문장을 {이상하다}의 논항으로 삼는 경우이다. 25'')은 상황공범주를 상정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형식언어의 처리에서는 문장부사를 연산자로 취급하여, 전체문장이 진리치가 결정된 뒤 다시 합성성원리를 적용시킨다(cf. 가능연산자, 필연연산자). 우리도 25')의 기저구조를 가정하면, 형식언어의 처리와 유사한 운용을 할 수 있다. 공범주와 후행문이 동지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후행문의 주어가, {이상하다}의 주어와 공통되게 상정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의 경우 다음의 34)에서 그 불가능성을 곧 찾아낼 수 있다.

34-7) * [_{e_i} 이상하게] 줄음이 쏟아진다.

↳ *줄음이 이상하다.

본고에서는 문부사로서의 취급을 받아오던 사례들이 뒤따르는 전체문장을 논항으로 받고 있다고 가정하여,⁹⁾ 앞에서 다루어 오던 {－게} 어미와 일관된 처리를 유지한다.

26)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26') [e₁ 뒤늦게] [e₂ 그 사실을 알다]_i

26)의 경우도 기저구조가 26')처럼 상정된다. 보조사의 후접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25)와 같이 처리되는 것이다. 문장부사가 후행문을 논항으로 가져야 됨은 37~38)과 관련하여 다시 뒤에서 예증하기로 한다.

그런데 앞에서 {－게} 어미의 전체분포를 보이면서 들었던 예문 가운데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예문 24). 35)에 그것과 같은 구조의 예를 보이기로 한다.

35) 철수가 방을 [e₁ 깨끗하게] 닦았다.

36) 철수가 e₁ [방이 깨끗해지게] 닦았다.

예문 35)만을 보면, 내포문 {깨끗하다}의 주어논항은 생략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포문이 피동구조를 가질 때에는, 오히려 상위문의 목적어가 생략되고 있음을 예문 36)이 보여준다. 동지표되는 논항이 있을 때에 표면구조에서의 실현여부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이 예문들로부터 알 수 있다.

소위 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다음과 같이 중의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이 중의성은 수식범위의 차이에서 말미암는다. 이 예문에

(9) 이 형식은 유사분열문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때 표현가치 내지 표현의 중요성과 같은 화용기제를 무시한다면, 그 지시대상은 동일하게 된다.

(가) [[날씨가 무더움이(무더운 것이)] 이상하다] (예문 25)의 경우)

(나) [[e 그 사실을 알아(아는 것이)] 뒤늦다] (예문 26)의 경우)

여기에 제시된 유사분열문이 기저구조로 제시될 수는 없다. 기저구조에서 표면구조로 유도될 때에 '의미보존성'의 원리가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저구조에서 의미해석을 유도하는 기제를 장치하고 그곳으로 번역하는 경우(몬테규의 번역과정)를 제외하고서는, 종결어미를 갖는 동사의 지위와 비-종결어미를 갖는 것의 지위와는 차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 우리는 문장부사가 전체문장을 논항으로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7) 철수가 정답을 쉽게 알았다.

위 예문의 해석은 최소한 두가지 이상이 된다. 하나는 철수가 정답을 알았는데, 그 정답을 알아내는 과정이 수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쉽다}가 문장전체를 논항으로 받아야 한다. 문장부사의 지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구조가 아래에 보인 38-ㄱ)이다. 다른 하나는, 철수가 그 정답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이를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쉽다}는 '우습다'라는 함의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 이 구조는 38-ㄴ)에 해당한다. 이 수식범위의 차등에 따른 중의성은 늘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동사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38-ㄱ) [_{e1} 쉽게] [철수가 정답을 알다]_i

38-ㄴ) [철수가 정답_i을 [_{e1} 쉽게] 알았다]

이상에서 우리는 부사파생이라고까지 언급되었던 사례에서도 {-게} 어미가 문장을 이룰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는 {-게} 어미가 실현될 경우, 반드시 {-게} 어미를 실현시키고 있는 동사가 기저에서 문장을 형성하고 있어야 함을 보인 셈이다. 내포절이거나 접속절이거나를 막론하고, 그리고 파생접사로 거론되던 것들에서도 {-게} 어미와 관계된 명제들은 동지표되는 논항을 나눠갖거나, 또는 상이지표의 논항이 설정된다. 동지표되는 경우에는 상위문과 내포문에서 주어들이 될 수도 있고,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일 수도 있었다. 문부사의 경우는 같은 지표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이지표의 경우는 서로 외연이 다른 것들로 이루어진다.

3-5.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경우에 {-게} 어미가 문장을 형성함을 보았다. 본절에서는 그 관계가 통일되게 의미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절에서는 {-계}의 의미자질을 상정한다. 그 의미자질로써, 앞에서 보였던 모든 {-계}의 분포가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우리는 지표가 부여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동지표와 상이지표이다. 동지표의 경우에는 선행문과 후행문⁽¹⁰⁾ 사이에 주어가 모두 관계되기도 하고, 선행문의 목적어와 후행문의 주어가 관계되기도 하였다. {-계} 어미의 기본 의미를 정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은 주어논항의 동이여부이다. 이를 동일주어 구조와 상이주어 구조로 표현하자. 동일주어 구조는 동지표되는 관계에서 주어-목적어 동지표를 제외한 경우이다. 이 이외에는 모두 상이주어 구조가 된다. 일단 두개의 동사가 {-계} 어미에 의해 결합되는 모습을 편의상 39)처럼 나타내기로 하자.

39) P {-계} Q

여기서 P와 Q로 표시되는 명제단위는 각각의 선행동사 및 후행동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계}의 의미를, 동일주어의 구조가 주어지면 P는 Q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상정하고, 상이주어의 구조가 주어지면 P는 Q에 대한 [목표점]으로 상정한다. 전자의 경우, 주관적 평가라는 것은 어떤 사태나 사물에 대하여 정도성이나 상태성을 부여함을 의미한다. 후자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어떤 지향점이 된다. 동일주어의 구조는 예문 33)과 예문 25~26)의 경우이다. 이들의 기저를 40~41)로 표시하기로 하자(내포되는 문장(complement) 과 그 위치를 아래 첨자 _c나 _i를 써서 나타낸다).

(10) 더 정확히 표현하면, 본고에서는 {-계} 어미의 기저를 부사절로 보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내포절과 모문절이라는 용어를 써야 마땅하다. 그러나 두개의 문장을 {-계} 어미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앞쪽과 그 뒤쪽에 배열하는 것을 고려에 넣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이 용어가 전통적인 복합문 분류용어이므로, 이런 교착은 새 용어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다소 불가피할 것이다. 39)처럼 표시한 배열도, 기저구조의 통사적인 형상과는 관계없이 다만 의미를 차이 있게 나타내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 40) [e₁ 예쁘-게]_c [꽃₁이 [S]_c 피다]
 41) [e₁ 이상하-게] [날씨가 무덥다]₁
 42) [e₁ 뒤늦-게] [e₂ 그 사실을 알다]₁

동일주어를 갖는 것은 후행절쪽으로 내포가 이루어지거나 선행절쪽으로 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포문이라는 공통점이 어떤 배타성을 확립시켜 주는 자질은 되지 못한다. 여기서 40~41)은 선행절이 상태성이나 정도성의 해석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꽃이 예쁜 상태로 피었다: 꽃이 예쁜 정도로 피었다). 그러나 42)에서는 상태성만으로 해석되어야 자연스럽다(뒤늦은 상태이다). 이 결정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함께 작용한다. 가령 42)의 예문도 {뒤늦게 기차가 도착하였다}로 내용이 바뀌게 되면, '뒤늦은 정도'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¹¹⁾

- (11) 엄밀하게 말하면, 41~42)의 구성은 동일주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곳에서 같이 논의되는 게 마땅하지 않다. 41~42)의 구조에서 후행문 Q가 선행문 P의 논항으로 흡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포문을 갖는 형식을 중심으로, 39) 'P { -게 } Q' 구문의 형식을 갈래지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래 첨자 C는 보문을 가리킴).

- (가) [[Q]_c...P...]_{sn} { -게 } [Q]_{se}
 (나) [P]_{sn} { -게 } [...Q...[P]_c...]_{se}
 (다) [P]_{sn} { -게 } [Q]_{se}

(가)의 경우가 41~42)에 해당되고, (나)의 경우가 40)과 45~47)에 해당되며, (다)의 경우가 43~44)에 해당된다. (가)~(나)의 모습에서 보여 주듯, 만일 P와 Q 가운데 어느 것이 내포되느냐에 따라 의미해석의 차이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를 '통사적 유연성'으로 화립시킬 수 있겠다. 그렇지만 실제로 있어서, 어느쪽이 내포되느냐의 여부는 의미해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일단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두개의 의미해석이 타당하다고 전제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가)~(다)의 모습에 따라 의미해석을 관련시켜 주는 방안을 다음처럼 제시할 수도 있다. 첫째, (가)의 구조를 갖는 예들은 무조건 [주관적 평가]의 해석을 받게 한다. 둘째, (나)의 구조를 갖는 경우 동일주어 조건이 만족되면 [주관적 평가]의 해석을 받게 한다. 셋째,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목표점]의 해석을 받게 만든다. 이 방안은 배타적 정의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전형성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필자는 이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알 수 없다. 대신 필자는 두개의 전형성을 양극점으로 제시하고, 그것들을 각각 동일주어와 상이주어로 이해하였다. 41~42)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 평가]를 받는다는 언어적관을 살려, 41~42)를 잠정적으로 동일주어 구문에다 포함시켜 다루어 둔다. 이때, 문장과 영사구는 공통자질을 나누어 가지며 '자연부류'를 이루게 된다. 그 공통자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다음은 상이주어의 구조를 갖는 경우이다. 이들은 앞에서 분포를 거론하면서 들었던 예문 20~24)의 기저구조에 해당한다.

- 43) [잠이 오-게] [e 눈가리개를 켜우다]
- 44) [바람이 들어오-게] [e 문을 열다]
- 45) [e_1 남-게]_c [철수가 영화₁를 [S]_c 하다]
- 46) [영화가 남-게]_c [e [S]_c 되다]
- 47) [e_1 깨끗하-게]_c [e_2 방을 [S]_c 청소하다]

43)에서 후행절의 행위는 선행절을 목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점은 44)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5~47)은 내포문 형식([S]_c)을 갖고 있다. 동지표를 받는 논항들이 있지만, 그들의 위계가 서로 다르므로 상이주어의 구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포문 형식이란 아무런 유연성도 담고 있지 않다. 45~47)의 예들에서도 선행절은 언제나 목표점을 가리킨다. 다만 46)은 {되다}라는 후행절 동사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의 변화를 지시하게 됨으로써, 다소 ‘상태성’의 해석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상태성도 목표점의 하나로 간주되므로 우리가 세운 해석의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앞에서 {-게} 어미의 구문들이 통사상으로 모두 내포절(특히 부사절)을 이룬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주5 참조). 통사상으로 하나의 구조를 갖게 된다면, 그 어미의 의미도 하나의 통합내용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우리가 세워놓은 [(주관적) 평가]와 [목표점] 사이에는 어떤 공통성이 추출되어야 하겠다. 두 개념만을 놓고 비교할 때에, 우리는 “목표-(도달)-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중간에 놓인 도달여부는, 두 개념을 연상작

기용·나병모 편역(1988) ‘구구조의 생성’(한신문화사)에서의 논의(특히 제1장 4절)를 참조할 수 있다. (가)에서 일단 후행문의 Q가 선행문에 내포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흔적’을 남기게 되므로 두개의 명제형식에 대한 요구조건은 여전히 만족되게 마련이다.

용으로 이어주기 위한 보조역할의 것이므로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두 개념 가운데에 [목표]가 먼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범위는 [평가]보다 더 넓다고 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목표점에 도달된 이후에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도달되지 않는 시도들 — 다시 말하여, 평가선상에 이르지 못하는 내용들 — 을 고려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부각시키기로 한다.

[목표점]으로 주어지는 상이주어 구조의 분포에서, 더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되는 동일주어의 구조로 바뀌면, 그 의미내용도 [(주관적) 평가]로 진행한다. [(주관적) 평가]의 내포는, 다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련에 따라 ‘정도성’의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상태성’의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전환에서 아직 미진한 구석이 있다. 왜 상이주어의 구조에서 동일주어의 구조로 바뀌게 되면 의미내용도 따라서 전환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해결책은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이런 내용이 하나의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관찰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 우리는 국어의 또 다른 사례에서 어떤 유사한 경우들이 많이 찾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계} 어미가 통일되게 특정한 통사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혀냈고, 그 관계를 의미해석과 관련하여 동일주어 및 상이주어의 구조로 분류하였다. 각 분류는 의미해석에서 고유한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상이주어의 구조일 때에는 P가 [목표점]을 가리켰고, 동일주어의 구조일 때에는 P가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였다. 이 두 의미내용은 [목표점]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조건이 가미되면 [평가]어로 나가게 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앞장에서 다루었던 부정소의 의미처럼 $[A+B]$ 로 명백하게 표시될 수 없는 것이 흠이지만, 그럴 개연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계} 어미에서 보여주는 의미내용의 전환은, 통사적 전환과 병행한 모습을 보인다. 통사적으로 {-계} 어미의 모든 분포를 내포문 부사절로 기저에 장치하고(주5 참조), 그 부사절의 성격들

을 표면구조로 유도하면서 갈래를 구명해 나가는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저구조에서 부사절로 장착된 선행절은 표면구조로 도출되는 동안, 철저히 보문절의 구성을 이루기도 하고, 느슨하게 종속절을 이루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미자질 부여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수립될 수 있다. 모든 {－계} 어미의 의미가 기저 차원에서 [목표점]으로 주어져 있다가, 표면에서 긴밀한 동일주어의 구조가 확립되면 [평가]라는 의미자질을 더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최소한 {－계} 어미의 분포에서 간결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재일(1988), “국어의 내포문,” 국어생활 12.
- 김영희(1987), “국어의 접속문,” 국어생활 11.
- 김승곤(1986), “이음씨끝 ‘-게’와 ‘-도록’의 의미와 통어적 기능,”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김지홍(1989), “부정과 부사형어미 구문,” 정연찬선생 회갑논총, 탑출판사.
- 남기심 · 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기심(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어미,” 말 10(연세대).
- 문교부(성대 대동문화연구원)(1985),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
- 박정규(1989), 현대국어의 부정문연구, 서강대(석론).
- 서정수(1988), “어미 ‘게’와 ‘도록’의 대비연구,” 말 13(연세대).
- 유현경(1986), “국어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 윤평현(1988), “‘-게, -도록’의 의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 이광호(1988), 국어 격조사 ‘을/를’에 대한 연구, 서울대(박론).
- 이기용(1979), “두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 국어학 8.
- 이상태(1988), “접속문의 통사현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0(경북대).
- 이승욱(1984), “중세어의 ‘이’부사화와 일부 켄어현상,” 동양학 14(단국대).
- 이시형(1989), “보문자 ‘게’와 ‘도록’의 대비고찰,” 정연찬선생 회갑논총, 탑출판사.
- 이익섭 · 임흥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임흥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3(서울대).
- _____(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신원재(1987), “현대국어 부정표현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논문집 26(서울사대).
- 최현배(1971 네번째 고침), 우리말본, 정음사.